

면방적업계에서 면·양모 혼방소재가 각광받아

요즘 일본에서는 소위 비수기(非需期)라고 하는 추동시즌에 조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고심하는 면방적에게 면·양모 혼방소재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몇몇 면방적회사에서는 그전부터 추동시즌을 지혜롭게 넘기기 위하여 면·양모 혼방소재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마이너(minor)한 존재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소재가 되었다.

구라보는 방축(防縮)양모를 면으로 감싸주는 면 90%, 양모 10% 혼방의 이중구조사(二層構造絲) “루나화”를 상품화하였다. 3년 전 판매초기에는 이 소재가 잘 팔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2002년에 판매량이 단숨에 전년도 판매량의 두 배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도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도요보는 3년 전에 흡습발열성을 더욱 좋게 한 특수가공 양모와 면의 혼방사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 소재가 내의소재로 폭발적으로 판매되었다.

신나이가이멘은 20년 전부터 면 70%, 양모 30% 혼방 코머사를 시판해오고 있는데, 이 소재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어, 2002년도의 판매량 20t을 초과할 것 같다.

사염(絲染)업자들도, 4, 5년 전부터 면·양모 혼방사의 염색을 시작한 “니시진(西陣)”염색도, 어패럴로부터 면·양모 혼방사의 염색주문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염업자인 “교에이(共榮)”염색에서도 20년 전부터 구라보의 면·양모 혼방사 “로스톤”을 염색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들 소재의 염색의뢰가 늘고 있다.

요 근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면·양모 혼방소재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네보섬유는 2003년 봄에 면 50%, 양모 50% 혼방사 “머조리티(Majority)”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브이 넥 스웨터(sweater)시장에 생산해서 여유분을 보관해 놓고 판매하는 비축판매(備蓄販賣)를 시작하였다. 가네보의 니트제품팀은 2003년도에 50t은 판매할 계획이었다.

닷타(龍田)방적은 면을 솜상태로 정련하여 양모와 혼방함으로써, 염색 후 품위에 문제가 된 면닥지를 없애는 데 성공하였는데, 파스텔(pastel)컬러로 염색한 면 80%, 양모 20% 혼방사 “파나코트울”을 상품화하였다. 2004년 추동용으로 어린이옷, 여성 내의소재로서 3~4t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도요보는 2004년 추동용으로 특수혼섬(混纖) 양모사 “마나드 W”와 면의 복합소재도 상품화하여 면·양모 혼방사의 공동판매규모를 연간 150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과 양모를 조화롭게 짝지어 하나의 소재를 만들려면, 식물성 섬유인 면은 모보다도 섬유장이 짧고 가늘며, 서로 섬유의 외모도 판이할 뿐만 아니라, 면은 알칼리에 강하지만 산에 약하다. 동물성 섬유인 모는 섬유표면에 스케일(scale)이 있고, 마찰을 받으면 정전기도 일으키고 화학적인 특성은 면과 정반대이다. 그러므로 특히 염색가공에 특수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면·양모 혼방사를 오랫동안 취급해 오고 있는 도코(同興)방적은 초봄소재는 면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염색공장에서 면의 특성을 살리도록 주력한다. 반대로 초가을 소재는 양모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에서 양모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이들 소재의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하였다.

구라보의 이층구조의 면·양모 혼방사 “루나파”의 염색을 담당하고 있는 “교에이”염색은 “양모와 면 모두의 특색을 살린 소재감(感)을 표현한다”는데 정성을 쏟아 와서 지금은 염색가공의 고유의 노하우를 확립하였다.

면방적에서 면·양모 혼방의 새상품 개발의욕이 높아지고, 이에 발맞춰 염색가공업자의 기술개발도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면·양모 혼방소재가 면방적업계가 메이저(major)상품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